



장성군공설운동장 조감도

장성군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 3만 4천 발길 모여든다

4~5월 '장성 방문의 달'... '성장장성 락 페스티벌',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도 열려

장성군에서 최초로 열리는 전남체전, 전남장애인체전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 군은 양대 체전 기간 장성을 찾는 선수단 및 관람객 규모가 3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제64회 전남체전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육상, 축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궁도, 태권도, 배드민턴, 복싱, 유도, 볼링, 수영, 사이클, 검도, 사격, 골프, 바둑, 역도, 농구, 당구, 족구 총 23개 종목이 경기를 갖는다.

첫 경기는 종목의 특성상 하루 전인 17일에 열리는 골프(푸른솔GC)다. 대회 마지막 일정은 21일 오후 1시 스타디움 주경기

장에서 펼쳐지는 축구 결승전이다.

제33회 전남장애인체전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다. 30일 오후 1시 문향고등학교에서 열리는 당구시합을 시작으로 게이트볼, 골볼,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수영, 역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파크골프, 양궁, 승마, 테니스, 펜싱, 댄스스포츠, 태권도 총 21개 종목의 시합이 열린다.

양대 체전의 개최로 인한 생활인구 증가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에 따르면 전남체전 선수단 규모는 7000명, 관람객 수는 1만 5000명으로 예상된다.

전남장애인체전 선수단·관람객까지 합산하면 3만 4000명의 발걸음이 장성으로

향하게 된다.

체전 개최에 발맞춰 운영하는 '장성 방문의 해' 관광 프로젝트도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군은 4~5월을 '장성 방문의 달'로 정하고 '영수증 리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장성지역 음식점, 커피숍, 숙박업소를 이용한 뒤 장성역 여행자 플랫폼에 들러 인증하면 2~7만 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관광과(061-390-7240)로 문의하거나 '장성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4월 19일 '성장장성 락 페스티벌'과 5월 10~11일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까지 열려 더욱 많은 방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기원 시장·군수 릴레이 목포·진도서 시작... 감동·화합·안전축전 손팸말 들고 홍보

진라남도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기원 시장·군수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대축전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체육인의 화합과 건강한 체육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챌린지 첫 주자는 주 개최지 목포시와 게이트볼 경기가 열리는 진도군이 맡았다. 이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시군 단체장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한다. 감동·화합·안전 축전 홍보 문구가 적힌 손팸말을 들고 릴레이 인증샷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2025 전국생활체

육대축전이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전 국민의 축제이자, 지역 상생의 장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 행사"라며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OK! Now 전남, 활기 UP 생활체육!'이라는 목표로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1개 종목으로 나눠 경기를 펼친다. 2023년 전국(장애인)체전과 2024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남의 우수 관광·문화·산업·역사를 널리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수 기자



문이 예상된다"며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패적인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테이션 신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입 운영 3년 지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입 GS건설 | (주)한원/건설 | HDC현대산업개발

“강진에서 큐대를 잡아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반값여행·놀토수산물시장·불금불파 등 각종 행사와 연계 스포츠와 관광이 만나는 대축전! 손님 맛이 준비 완료

전국 생활체육인들의 축제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전남도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총 41개 종목이 개최된다. 강진군은 당구 종목 개최지로 선정돼 강진제2실내체육관에서 4일간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캐롬(3쿠션)과 포켓볼(8볼·9볼) 경기가 나뉘어 연례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본 대회는 75세이상부, 60~75세어르신부, 59세이하부 경기로 24~25일은 75세이상·60~75세어르신부, 26~27일은 59세이하부 경기가 진행된다.

강진군은 성공적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위해 연초부터 경기장 시설 안전점검, 숙박업소·음식점 위생점검, 선수단 환영 조형물(포토존) 설치 등 담당 부서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대축전 경기 진행 전 방역 소독, 경기장 출입구 소독발판 설치, 경기장 내부와 화장실 소독용품 비치해 대축전 종료시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강진 반값여행 및 관내 숙박업소·음식점 사전 홍보와 대축전 기간에 마량 놀토, 불금불파, 아트홀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연계 개최로 강진을 방문한 선수단이 당구 경기뿐만 아니라 강진에서 먹고 자며 볼거리도 함께 즐기며 반값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참가선수단이 확정되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생활체육

당구 동호인들이 실력을 겨루는 것은 물론,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진원 군수는 “당구를 사랑하는 전국의 생활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대회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강진군의 스포츠 인프라, 주요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구례군청 씨름단, 2025년 민속씨름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 국화급 우승

국화급 엄하진 선수 국화급 장사 등극... 김시우 선수 매화급 2위 기록

구례군청 씨름단 엄하진 선수가 '2025년 민속씨름 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제39회 전국시·도 대항장사씨름대회에 이어 전국 최강 씨름단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4월 2일부터 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열리는 '2025년 민속씨름 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에서 엄하진 선수가 국화급에서 우승하며 정상에 올랐다. 또 매화급 김시우 선수도 2위를 기록하는 등 구례군청 씨름단의 저력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국화급 결승전에 오른 엄하진 선수는 괴산 김주연 선수를 상대로 노련한 발차기와 잡채기 기술을 활용해 2:1 박진감 넘치는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두며 제39회 전국시·도대항장사씨름대회에 이어 장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경기 후 엄하진 선수는 “부상 이후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훈련에 매진했는데,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눈물 어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과 노력으로 좋은 성적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매화급 결승에서는 김시우 선수가 안산시청 김재오 선수와의 경기에서 들배지기와 안다리 기술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아쉽게 2:1로 패배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시우 선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 선수들의 끈기와 노력이 정말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구례군청 씨름단이 전국 최고의 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구례/한정호 기자